

미중경쟁 시기 중국의 대동남아시아 군사·안보협력 분석

권재범* · 황수환**

- I. 서론
- II.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과 중국의 인식
- III. 중국의 대동남아 군사·안보 협력
- IV. 중국-동남아 군사·안보협력의 전망과 한계
- V. 결론

주제어: 미중관계, 중국의 부상, 중국-동남아시아 관계, 군사·안보협력

|국문초록|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두 강대국은 경쟁의 우위에 서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반중국 안보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봉쇄에 대해 중국 역시 다양한 대응노력을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지역 국가들과의 군사·안보협력이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경제적, 외교적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던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를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주로 양자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분석을 통해 중국은 일부 국가들과는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지만 또 다른 일부 국가와의 협력 정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거나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몇몇 한계점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군사·안보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시도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관계연구』 제27권 제2호(2022년 겨울호).

<http://dx.doi.org/10.18031/jip.2022.12.27.2.103>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주저자)

**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부연구위원 (교신저자)

I. 서론

201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경쟁과 마주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강화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궤를 같이 하며 두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에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했고, 오늘날 두 국가는 전통적인 안보 영역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시기의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자신이 구축해놓은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패권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양국 간 힘의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는 중국이 위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 수준을 확대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정책에 따라 미국은 지역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안보협력관계 구축을 꾀하는 중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미국은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 같은 지역 국가들과 주목할만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역시 미국으로부터의 봉쇄에 대응하고, 중국에게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중이다. 중국은 어느덧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최대의 무역상대국, 중요한 투자원천 등으로 자리잡으며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국가로 자리매김한 상태이다. 아시아 지역국가들 입장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안보분야에서의 중국과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중국과 지역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관계를 다룬 논문은 굉장히 많았다.¹⁾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양

1) 중국과 동남아시아 협력관계를 다룬 논문은 국내외에 무수히 많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들 연구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였으며, 극히 일부만 밝힌다.

자관계를 다룬 논문들은 상당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의 전략 추진 동인과 특징, ASEAN의 반응 등을 분석했다.²⁾ 또 다른 논문들은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의 다자주의 협력체 참여 및 창설 노력을 통한 양자 협력관계를 살펴보았으며,³⁾ 미중경쟁시기 동남아시아 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제도적 균형’을 조명하기도 했다.⁴⁾ 최근에는 미중 간 기술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전략과 ASEAN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⁵⁾ 이들 연구들은 특히 경제적, 외교적 차원에서 중국의 대동남아시아 전략 추진의 배경과 동인, 그리고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은 상당수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분야에서의 중국-동남아시아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군사·안보적 영역에서의 양자관계에는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다는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전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계를 다루되 지금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중국의 접근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시기에서 중국의 대동남아시아 군사·안보 협력관계 구축노력의 진행현황을 살펴보고 그 특징과 한계점 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대 동남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 - 태국, 캄보디아, 말

2) Shihong Bi,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under the Building of ASEAN Economic Community,"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Vol. 10, No. 1 (2021), pp. 83-107; Min-Hua Chiang, "China-ASEAN Economic Relations after Establishment of Free Trade Area," *The Pacific Review*, Vol. 32, No. 3 (2019), pp. 267-290.

3) Zhao Hong,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ASEAN,"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7, No. 2 (2019), pp. 127-147; Xue Gong, "The Belt & Road Initiative and China's Influence in Southeast Asia," *The Pacific Review*, Vol. 32, No. 4 (2019), pp. 635-665.

4) Kai He, "Contested Regional Orders and Institutional Balancing in the Asia Pacific," *International Politics*, Vol. 52, No. 2 (2015), pp. 208-222; Kai He, "The Balance of Infrastructure in the Indo-Pacific: BRI, Institutional Balancing, and Quad's Policy Choices," *Global Policy*, Vol. 12, No. 4 (2021), pp. 545-552; Sovinda Po and Christopher B. Primiano, "Explaining China's Lancang-Mekong Cooperation as an Institutional Balancing Strategy: Dragon Guarding the Water,"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75, No. 3 (2021), pp. 323-340.

5) 정호경, "디지털 패권경쟁 시대의 중·아세안 관계 - 디지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제30권 제1호 (대한정치학회, 2022), pp. 1-23.

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 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군사·안보적 접근을 살펴본다. 중국은 특히 2010년대 이후 양자관계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지역국가들과 다양한 안보협약 및 양해각서 체결, 새로운 양자 합동군사훈련 추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중국의 노력이 실현되고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준다. 하지만 남중국해 문제 등과 같은 당면과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 국가들과의 군사·안보적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 상당한 장애물 역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II.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과 중국의 인식

2000년대 후반 이후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위가 강화되고 다양한 영역에서도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경쟁국을 넘어 도전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의 주장에 따르면 강대국들은 스스로의 생존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들이 쉽게 도전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힘을 길러야 하며, 가장 확실한 수단은 바로 국제체제 수준에서의 패권국 지위에 오르는 것이다.⁶⁾ 하지만 지리적 한계 등과 같은 여러 제약 때문에 강대국들이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에 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대신 자신이 속한 지역의 패권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자신의 안보 확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 확실한 방안이라고 지적한다.⁷⁾ 또한 강대국은 향후 자신에게 도전할 세력의 부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지역 패권국이 등장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책임전가(buck-passing), 균형전략(balancing) 등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미국은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향후 자신의 입지에 도전할 만한 잠재적인 지역 패권국의 등장을 견제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라는 국가가 부상

6) John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pp. 1-4.

7) Mearsheimer (2001), p. 41.

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등과 같은 대중국 균형전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최근 국방백서 등을 포함한 각종 공식문서를 통해 중국은 미국이 지금까지 구축해놓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현상타파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명시하기도 했다.⁸⁾ 특히 미국은 2018년 ‘미 국방전략서(Summary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SA)’를 통해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안보환경 조성 및 유리한 지역질서 재정립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처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⁹⁾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에게 유리한 힘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을 명시했다.¹⁰⁾

이에 따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 중국이라는 도전국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2년 ‘아시아 재균형정책(Pivot to Asia strategy)’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몇 가지 중요 목적을 가지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전략적 개입 수준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지역 내 미국에 적대적인 지역 패권국의 등장 방지, 지역 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지역 국가 내부의 정치·사회적 소요 방지, 비전통안보문제에 공동대응 위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이 그것이다.¹¹⁾ 그리고 아시

8) U.S. Department of Defense, *2020 China Military Power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20), pp. 4-5;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6, 2020,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20/05/U.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Report-5.24v1.pdf> (검색일: 2022년 10월 2일).

9)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SA,” <https://dod.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2018-National-Defense-Strategy-Summary.pdf> (검색일: 2022년 10월 2일), pp. 2-3.

10) U.S. Department of Defense (2018), p. 5.

11) David Shambaugh, “Assessing the US “Pivot” to Asia,” *Strategic Studies Quarterly*, Vol. 7, No. 2 (2013), p. 16.

아 재균형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미국은 전통적인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동맹구조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 및 안보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미공군 병력의 60%, 미해병대 병력의 2/3를 이지스 방어 시스템(Aegis system)이 장착된 전투함, B-2 폭격기, 5세대 전투기 등과 같은 최신 전략자산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입해오고 있다.¹²⁾ 또한 이 지역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ific Command)에 2010년대 이후 2,000기 이상의 전투기, 200척 이상의 전투함 및 잠수함, 37만 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며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수준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¹³⁾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미국은 필리핀과 기존에 맺었던 ‘방문군지 위협정(Visiting Force Agreement)’을 대체하는 ‘향상된 국방협력 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체결을 통해 필리핀에 미군전력을 지속적으로 주둔하는 한편 일부 필리핀 군사기지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고, 싱가포르와도 협정을 통해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네 척의 연암전투함의 순환배치, P-8 해상초계기를 배치, 운용하게 되었다.¹⁴⁾ 특히 싱가포르는 최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의 핵심축으로 자리잡고 있기도 한데, 2011년 미국과 싱가포르 간의 ‘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이 체결되어 보다 신속한 양국 군대 간의 군수물품 및 무기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9년 새로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싱가포르 공군 인력의 콰안더슨 기지 파견 및 교육이 약속된 한편, 1990년에 체결되었던 기존의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싱가포르에 대한 미군의 주둔기간이 15년 연장되기도 했다.¹⁵⁾ 한편, 전통적인 동맹국가 중 하나

12)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6 Annual Report to Congress,” November 2016, <https://www.uscc.gov/annual-report/2016-annual-report-congress> (검색일: 2022년 10월 4일), p. 478.

13)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ecurity Strategy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9), p. 19.

14)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pp. 23-28.

15) Euan Graham and Tim Huxley, “The US-Singapore Enhanced Defence Agreement: A Third Upgrade for Bilateral Collaboration,” Lowy Institute Report, December 10, 2015,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us-singapore-enhanced-defence-agre>

였던 태국의 경우 2014년 태국 내 군부 쿠데타 이후 미국의 제재 부과 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경색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존의 대태국 제재조치를 폐지하는 한편 태국에 대한 무기판매 재개, 태국 총리 초청 등을 통해 미국-태국 동맹관계에도 회복조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⁶⁾ 이외에도 미국은 2010년대 이후 남중국해 영토분쟁의 주요 당사국 중 하나인 베트남과도 눈에 띄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며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¹⁷⁾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에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빠른 속도로 군사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지역질서 확립, 다양한 안보문제 대응에 있어 미국의 지도력과 역할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2020년 워싱턴을 방문한 싱가포르의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는 미국 애틀랜틱 위원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현재 싱가포르가 우려하는 것은 첫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 둘째 미국이 더 이상 아시아로부터 얻을 이익이 적다고 판단하고 이 지역에서 발을 빼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지지한 바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국과는 ‘좋은 관계(good relationship)’를 설정하길 원하는 반면 미국과는 ‘굉장히 깊은 관계(very deep relationship)’로의 설정을 원하며 미국과의 관계에 상대적인 무게를 두는 뉘앙스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다.¹⁸⁾ 이에 더해 2022년

ement-third-upgrade-bilateral-collaboration (검색일: 2022년 10월 1일); L. A. M. Peng Er, “Singapore-China Relations in Geopolitics, Economics, Domestic Politics and Public Opinion: An Awkward ‘Special Relationship’?”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Vol. 10, No. 2 (2021), pp. 203-217.

16) Ian Storey, “Thailand’s Military Relations with China: Moving from Strength to Strength,” *ISEAS Perspective*, No. 43 (2019), p. 3.

17) 조원득·이상숙, “미중 전략경쟁과 베트남의 대중국 전략: 헤징에서 연성균형 전략으로,” 『동북아연구』 제35권 제2호 (동북아연구소, 2020), pp. 27-28.

18) *Radio Free Asia*, “As US, Australia Hang Tough on China, Singapore Seeks Stability,” July 28, 2020, <https://www.rfa.org/english/news/china/singapore-07282020183454.html> (검색일: 2022년 10월 6일).

미국을 방문한 리 총리는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부장관 등과의 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는 한편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다.¹⁹⁾ 결국,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이 추진되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고, 군사·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게 상당한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안보네트워크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공세적 현실주의의 논리 역시 중국의 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차지해야 하는 바,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중국을 방해할 경우 그에 맞서는 견제전략을 추진해야함을 암시하기도 한다.²⁰⁾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전략과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협력관계 구축 노력에 대해 중국을 포위, 봉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해왔다.²¹⁾ 특히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해당 전략을 중국을 직접적으로 봉쇄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대담한 전략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이다.²²⁾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4년 5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에서 동맹을 냉전적 사고(cold war mentality)에 근거해 제로섬 게임을 야기하는 제도로 언급하며 특정국가를 겨냥한 군사동맹 강화는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²³⁾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안보전문가

19) *The Diplomat*, "Singapore's PM Meets With President Biden on US Trip," March 3, 2022, <https://thediplomat.com/2022/03/singapores-pm-meets-with-president-biden-on-us-trip/> (검색일: 2022년 10월 1일).

20) Mearsheimer (2001), pp. 40-42.

21) Ely Ratner, "Rebalancing to Asia with an Insecure Chin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6, No. 2 (2013), pp. 21-38; Michael D. Swaine, "Chinese Leadership and Elite Responses to the US Pacific Pivot," *China Leadership Monitor*, Vol. 38, No. 5 (2012), pp. 1-26.

22) Ratner (2013), p. 23.

23) *Global Times*, "Xi Defines New Asian Security Vision at CICA," May 22, 2014, https://www.globaltimes.cn/content/861573.shtml?utm_source=The+Sinocism+China+News+letter&utm_campaign=c1267a193c-Sinocism05_22_145&utm_medium=email&utm_t

와 학자 역시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 중인 미국의 의도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²⁴⁾ 중국 관영언론인 인민일보의 영문지(People's Daily)는 사실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근본적으로 대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²⁵⁾ 무엇보다도 중국은 미국이 지역 국가들과 공고한 군사·안보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경우 향후 미국만을 상대해야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의 협력국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²⁶⁾

결국, 중국 내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경제력과 정치력, 외교력, 그리고 심지어는 군사력까지 포함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주변 이웃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그들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안보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²⁷⁾ 그리고 주변외교(peripheral diplomacy)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보다 확대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기존의 경제적 관계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관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주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해 왔으며, 자국의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제공, 경제분야 다자설립체 창설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경제적 자원 이외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차원에서의 능력 역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군사외교(military diplomacy)'라고도 불리는, 군사적 자원을 활용한 외교활동 역시 제시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타국과의 군사력 활용

erm=0_171f237867-c1267a193c-28865009&mc_cid=c1267a193c&mc_eid=ac039854ec (검색일: 2022년 10월 10일).

24) Swaine (2012), pp. 3-7.

25) Zhong Sheng, "Inconsistency Between Words and Deeds Lowers U.S. Influence in Asia-Pacific," *People's Daily Online*, June 5, 2012 (검색일: 2022년 10월 4일). Swaine (2012)에서 재인용.

26) Ratner (2013), p. 23.

27) Michael D. Swaine,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Periphery Diplomacy," *China Leadership Monitor*, Vol. 44, No. 1 (2014), p. 25.

을 통한 군사·안보 협력관계 증진을 바탕으로 중국의 안보 확립, 국가이익 확보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²⁸⁾ 여기서 말하는 군사력 활용이란 전쟁을 수행하거나 상대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합동군사훈련 추진, 군대 간 상호 교류 촉진, 군사적 지원, 비전통안보문제 대응 등을 의미하며, 군사 외교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군사력을 활용한 타국과의 관계 형성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다른 강대국 및 지역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군사력을 활용한 외교정책은 보다 넓은 차원에서 중국의 대외정책과 국가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때문에 군사·안보적 영역에서도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가 필요함이 지적되고 있다. 2014년 전국외사공작회의(All-Military Diplomatic Works Conference)에서 시진핑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국의 종합적인 외교정책을 지원하고, 국가안보 보호, 중국의 자주권 및 경제발전과 관련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중국 군사력을 활용한 ‘군사외교’가 수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기도 했다.²⁹⁾ 즉, 중국은 경제적 자원 뿐만 아니라 활용 가능한 군사적 자원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전략적 관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노력 역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추진 중인 중국 외교정책의 한 축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결국 중국 외교정책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국의 지속적 발전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군사 자원을 통한 타국과의 군사·안보협력 강화 노력 역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³⁰⁾ 먼저, 전략적 차원(strategic dimension)에서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중국의 국가 이익 수호에 기여할 수 있다. 군사적 자원 활용을 통해 중국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우호적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안보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중국의 외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인

28) Kenneth W. Allen, John Chen, and Phillip C. Saunders, *Chinese Military Diplomacy, 2003-2016: Trends and Implication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17), pp. 208-210.

29) Phillip C. Saunders and Jiunwei Shyy, “China’s Military Diplomacy,” in Scott D. McDonald and Michael C. Burgoyne (eds.), *China’s Global Influence: Perspectives and Recommendations* (Honolulu, HI: Daniel K. Inouy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2019), p. 209.

30) Allen·Chen·Saunders (2017), p. 10.

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군사 자원을 투입해 피해국을 돕고, 다양한 비전통안보문제에 대응하는 데 공공재화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작전적 차원(operational dimension)에서 군사외교를 통해 중국은 전투능력 및 승리능력 향상, 타국 군사능력과 의도에 대한 정보 수집, 새로운 전술 및 군사기술 습득 등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타국과의 군사훈련은 참여국의 군사적 기술 활용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합동훈련을 통해 타국과 중국군 간의 능력비교, 문제점 확인 및 보완, 공조능력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³¹⁾ 또한 타국과의 군사·안보협력을 통해 협력국가들은 일정 수준에서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각 국가들의 무기체계 및 지휘계통 등에 대한 정보나 군사기술 등이 공유되기도 한다. 또한 군사훈련시행지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군고위급 회담 및 교류를 통해서도 타국의 정치적, 전략적 선호도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³²⁾

무엇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개입수준을 확대하고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자원을 활용한 접근법 이외에 추가적으로 군사적 자원을 활용한 노력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양안보 안전문제나 각종 비전통안보문제 대응에 있어 주변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도 에너지안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 평화에도 기여한다는 이미지도 심어놓음으로써 지역 내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³³⁾ 이러한 목적의식 아래 중국 역시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군사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이들과의 군사·안보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31) Allen·Chen·Saunders (2017), p. 11.

32) Allen·Chen·Saunders (2017), pp. 10-11.

33) Saunders and Shyy (2019), p. 210.

III. 중국의 대동남아 군사·안보 협력³⁴⁾

중국은 200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어들였다. 이미 중국은 여러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무역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이나 ‘아시아투자은행 설립’ 등을 통해서도 동남아시아를 중국 주변외교의 핵심지역으로 간주하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균형전략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³⁵⁾

동시에 중국은 안보 영역에 있어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기도 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 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여러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한 목적 아래 중국은 ASEAN,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자주의의 틀 안에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노력을 진행해왔다.³⁶⁾ 이후 중국은 지역 안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SEAN이 출범시킨 여러 협력체에도

34) III장의 각 절에서는 2010년대 이후 추진 중인 중국과 동남아 각 국가들 간의 양자 군사·협력관계 수준에 따라 ‘전천후 협력관계,’ ‘점진적 협력관계’ 등 자의적으로 구분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여러 종류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해온 바 있다. 브루나이와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는 각각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을, 미얀마 및 태국 등과는 ‘포괄적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을, 싱가포르와는 ‘전면적 협력 파트너십(All-round Cooperative Partnership)’을, 베트남 및 라오스와는 ‘포괄적 전략적 협력의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f Cooperation)’ 등을 체결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과 중국 간의 파트너십은 주로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들 명칭들 간의 위계관계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장에서 저자들이 자의적으로 구분한 관계는 지금까지 중국과 동남아 개별국가 간 맺어진 파트너십의 명칭과는 상관 없는, 군사·협력 관계의 수준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나눈 것임을 밝힌다. 중국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Hoang Thi Ha, “The ASEAN-Chin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What’s in a Name?” *ISEAS Perspective*, No. 157 (2021), pp. 1-11.

35) David Shambaugh, “US-China Rivalry in Southeast Asia: Power Shift or Competitive Coexiste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2, No. 4 (2018), pp. 95-97; Lai-Ha Chan, “Soft Balancing against the US ‘Pivot to Asia’: China’s Geostrategic Rationale for Establishing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71, No. 6 (2017), pp. 568-590.

36) David Shambaugh, “China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2004), pp. 64-99.

가입하며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중이다. 특히 ASEAN이 ARF에 부족했던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기능을 보완하고, 참여국들 간에 보다 실질적인 협력까지 포괄할 목적으로 2010년 설립한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에 중국도 참여를 해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ADMM-Plus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군사안보 협력을 촉진하고 미국을 배제한 채 아세안 지역에 대한 안보영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³⁷⁾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동남아 국가 관계의 축은 경제 영역에 치우쳐져 있었으며 군사·안보영역에서의 협력 수준은 크게 뒤쳐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2010년대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계에는 군사·안보적 요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지는 모습이 관측된다. 즉,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 영역이나 외교적 영역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2010년대 중반 이후 군사·안보적 영역에서의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과거에는 군사·안보 분야에 있어 양자 간 관계가 주로 ASEAN이 주도하는 다자주의의 틀 안에 중국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중국과 개별국가 간의 양자협력관계 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합동군사훈련, 무기 및 군사기술 이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과 태국, 캄보디아 등과 같은 일부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 간의 군사·안보 협력관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등과 같은 국가들과도 군사 영역에서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현재 진행되는 중이다.

37) 이숙연, “안보목표 실현을 위한 아세안의 제도적 전략: ADMM-Plus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 24권 제4호 (한국아시아학회, 2021), p. 157.

1. 전천후(all-weather) 협력관계 구축: 태국, 캄보디아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한 태국, 캄보디아 등과 높은 수준의 군사안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시아 지역 국가 중 미국의 오랜 동맹국 중 하나인 태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으며,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협력 역시 예외는 아니다. 경제, 정치, 외교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양국 간 협력관계는 특히 2014년 태국 내 쿠데타 이후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태국을 지원함에 따라 꽃을 피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⁸⁾ 그리고 최근 2010년대를 거치며 심화하고 있는 중국과 태국 간의 군사협력수준은 양국 간 양자훈련, 무기 및 군사기술 이전, 교류 확대, 다양한 안보관련 협정 체결 등을 통해 확인된다.

중국과 태국은 2010년 이후 양자 합동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국가는 2010년 처음으로 대규모 합동 해군군사훈련(Exercise Blue Strike)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며 양국 해군 간의 공조능력 및 합동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³⁹⁾ 그리고 두 국가는 2015년 양국 공군 간 최초의 합동훈련(Exercise Falcon Strike)을, 2019년에는 특수부대 간 합동훈련을 시작하며 합동훈련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⁴⁰⁾ 중국과 태국은 양국 합동훈련분야를 해군, 공군, 특수부대로 확장시킴과 동시에 훈련 내용 역시 훨씬 정교하게 가다듬으며 군사적으로 보다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할 때 그 목적이 주로 해적 퇴치, 대테러훈련 등과 같은 비전통안보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태국 해군과의 훈련에서는 최신 무기를 투입해 대잠, 대공, 전자전, 수륙양용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38) Kevin Hewison, "Thailand: An Old Relationship Renewed," *The Pacific Review*, Vol. 31, No. 1 (2018), p. 125.

39) *The Diplomat*, "China, Thailand Kick Off Military Exercise Blue Strike 2016," May 23, 2016, <https://thediplomat.com/2016/05/china-thailand-launch-military-exercise-blue-strike-2016/> (검색일: 2022년 10월 3일).

40) Storey (2019), p. 8; *Asia Nikkei*, "Thailand and China: Brothers in Arms," February 2, 2017, <https://asia.nikkei.com/Politics/Thailand-and-China-Brothers-in-arms> (검색일: 2022년 10월 1일).

을 보여주며 해당 분야에서의 공동 작전수행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⁴¹⁾ 최근 중국과 태국은 또 다른 협정체결을 통해 2019년부터 세 훈련들을 한 해에 실시하기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⁴²⁾

한편, 중국은 태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군사 무기 및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년 동안 양국 간 무기 계약 체결 등을 통해 2015년 포병위치탐지레이더(BL904A artillery locating radar), 신형 지대공 미사일 포대(KS-1C), VT-4 주력전차 48대, 2017년 S-26T 잠수함 3척, ZBL-09 병력호송장갑차 34대 등 중국의 최신 무기들을 포함한 주요 장비들이 태국에 인도, 판매된 바 있다.⁴³⁾ 특히 잠수함의 경우 파격적인 가격조건과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처음으로 태국에 수출되면서 태국 해군력 강화정책에 중국이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은 2017년 태국과 공동으로 태국 영토 안에서 군사 무기 제조 및 보수시설 건립 계획을 마련하였다. 태국 북동부에 위치한 콘겐(Khon Kaen) 주에 양국 간 최초의 무기조립시설을 세우기로 합의하고 방위산업 차원에서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⁴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은 태국 무기 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잡게 된다. 더욱이 2014년 쿠데타 이후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군사·안보 영역에서 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한층 더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태국의 쿠데타 이후 미국 및 서구 국가들은 태국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일례로 미국은 태국에 대한 무기판매금지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외군사차관(Foreign Military Financing) 금액을 대폭 삭감하고 양국 간 국제 군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한편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미국-태국 합동훈련(Exercise Cobra Gold)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실시한 바 있다.⁴⁵⁾ 태국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41) Saunders and Shyy (2019), p. 216.

42) Storey (2019), p. 8.

43) Storey (2019), p. 4.

44) *Bangkok Post*, "Thailand Plans Joint Arms Factory with China," November 16, 2017,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1361683/thailand-plans-joint-arms-factory-with-china> (검색일: 2022년 10월 2일).

45) William T. Tow, "The United States and Asia in 2014: Reconciling Rebalancing and Strategic Constraints," *Asian Survey*, Vol. 55, No. 1 (2015), p. 15.

이었으나 중국이 그 자리를 대체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중국의 태국 무기수출 규모는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슷한 시기(2015~2019년) 중국의 태국 무기수출액은(약 3억 5천만 달러) 미국의 태국 무기수출액(약 1억 6천만 달러)을 두 배 이상 앞지르기도 했다.⁴⁶⁾ 또한 무기 판매뿐만 아니라 중국은 태국군에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이후 중국에서 군사위탁교육을 받는 태국군 장교의 숫자 역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⁴⁷⁾

중국은 군사·안보 분야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협력 심화를 위한 다양한 협정을 체결해오고 있다. 2015년 창완치안(Chang Wanquan) 당시 중국의 국방장관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태국에 방문하였고, 이 방문을 통해 태국과 초국가 범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약속하는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⁴⁸⁾ 그로부터 4년 후인 2019년 중국의 웨이펑허(Wei Fenghe) 국방장관이 태국을 방문해 군사장비 및 기술, 군사교육, 합동훈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중국-태국 국방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⁴⁹⁾ 특히 이때의 국방장관회담은 내용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많은 이목을 끌기도 했다. 당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던 때였는데, 중국 역시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한층 더 태국과의 군사관계 강화를 위한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대 들어 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오랜 기간 동안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오던 중국은 이제 태국에게 있어 믿을 수 있는 동맹국가로서 인식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⁵⁰⁾ 특히 태국이 전통적으로 미국의 오랜 동맹국가라는

46)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https://www.sipri.org/databases/armstransfers> (검색일: 2022년 10월 1일).

47) Storey (2019), p. 9.

48) Hewison (2018), p. 125.

49) *Xinhua*, "China, Thailand Agree to Enhance Military Cooperation," November 17, 2019,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11/17/c_138562358.htm (검색일: 2022년 10월 3일).

50) Ian Storey, *Thailand's Post-Coup Relations with China and America: More Beijing, Less Washington*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2015), p. 11.

점을 고려할 때 중국과 태국 간의 군사·안보협력 현상은 주목할 만한 이슈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국과 태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던 시기 중국은 경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 영역에서도 태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태국과의 군사·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을 미국의 안보적 영향권 안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시키는 결과를 얻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미국 주도의 반중국 안보네트워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해나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⁵¹⁾

캄보디아 역시 최근 중국과의 군사·안보협력을 빠른 속도로 심화하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캄보디아와의 양자훈련을 추진하는 한편 캄보디아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양자훈련과 관련해 중국과 캄보디아는 2016년 처음으로 양국 간 군사교류 증진, 우호친선관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양자 해군합동훈련(Exercise Golden Dragon)을 실시했다.⁵²⁾ 이미 이 훈련 직전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전투함 세 척이 훈련참가를 위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Sihanoukville) 지역 해군기지에 입항하였으며, 양국 병력 800여 명이 참여한 이 훈련에서는 해상구조훈련 및 해양에서의 긴급상황 대응훈련 등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며 두 국가가 처음 실시한 이 합동군사훈련은 중국-캄보디아 군사협력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로 인식되고 있다.⁵³⁾ 한편,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중국은 캄보디아와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두 국가 간의 긴밀한 군사적 협력관계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기도 했다. 2020년 중국과 캄보디아 양국 약 3,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여한 이번 Golden Dragon 훈련에서는 해군 뿐 아니라 양국 육군도 참여

51) 권재범, “미국의 반중국 안보네트워크와 중국의 대응: 태국을 겨냥한 중국의 썬기전략 분석,” 『아세아연구』 제64권 제2호 (아세아문제연구원, 2021), pp. 153-190.

52) *The Diplomat*, “China, Cambodia Hold First Naval Exercise Amid South China Sea Fears,” February 24, 2016, <https://thediplomat.com/2016/02/china-cambodia-hold-first-naval-exercise-amid-south-china-sea-fears/> (검색일: 2022년 10월 2일).

53) 이전 2008년에는 중국 해군의 훈련선이, 2013년에는 병원선이 캄보디아 해군기지에 입항한 사례가 있었으나 전투함의 캄보디아 입항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The Diplomat* (February 24, 2016).

했으며 합동정찰, 봉쇄작전, 산악지역에서의 대테러 훈련 등이 진행되며 양국 간 공조능력, 합동작전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⁵⁴⁾ 양국 간의 Golden Dragon 훈련은 이제 정례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던 이 훈련은 2022년 중국과 캄보디아의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재개 논의가 시작하였고, 2022년 중순 즉각 시행되었다. 인도주의적 보호, 재난재해 구호, 대테러 작전 등의 훈련을 통해 두 국가는 해당 문제 대응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조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⁵⁵⁾

중국과 캄보디아의 군사협력관계 증진은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2015년 7월 캄보디아 국방장관 티 반(Tea Banh)과 23명의 고위장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중국에 방문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대표단에 캄보디아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이 모두 포함되는 등 규모와 참석인원의 지위 측면에서 상당한 주목을 끌었다.⁵⁶⁾ 특히 이때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중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양측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노력에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입장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캄보디아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양국 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정 및 양해각서도 체결되었다. 일례로 중국은 캄보디아와 더 넓은 범위에서의 지상군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2022년 중국-캄보디아 육군 사령관 간 온라인 회의를 통해 체결하며 양국 간 핵심 분야에서의 군사협력 수준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⁵⁷⁾ 또한 최근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수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기도 했

54) *The Diplomat*, “What Did the 2020 China-Cambodia Golden Dragon Military Exercise Actually Achieve?” April 1, 2020, <https://thediplomat.com/2020/04/what-did-the-2020-china-cambodia-golden-dragon-military-exercise-actually-achieve/> (검색일: 2022년 10월 2일).

55) *Khmer Times*, “Cambodia, China Push for ‘Golden Dragon’ Military Drill,” August 18, 2022, <https://www.khmertimeskh.com/501133958/cambodia-china-push-for-golden-dragon-military-drill/> (검색일: 2022년 10월 2일).

56) *The Diplomat*, “Why is a Big Cambodia Military Delegation in China?” July 10, 2015, <https://thediplomat.com/2015/07/why-is-a-big-cambodia-military-delegation-in-china/> (검색일: 2022년 10월 2일).

57) *Khmer Times*, “Cambodia and China Sign MoU on More Army Cooperation,” April 4, 2022, <https://www.khmertimeskh.com/501052050/cambodia-and-china-sign-mou-on-more-army-cooperation/> (검색일: 2022년 10월 1일).

다. 두 국가는 2022년 중순 로켓탄 발사기, 트럭 탑재 곡사포, 전술차량 등을 포함해 수 천만 달러 규모의 중국산 무기를 캄보디아에 양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⁵⁸⁾ 중국은 지금까지 캄보디아의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잡아왔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 양국 간 군사적 신뢰관계는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계약을 통해 양도될 군사장비들은 캄보디아 육군 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무기로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캄보디아 군사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로 보이는 바, 중국에 대한 캄보디아의 군사·안보적 의존도 역시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중국과 캄보디아는 긴밀한 군사·안보 협력관계를 오래 전부터 맺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사례들을 통해 특히 2010년대 초중반 들어 양국 간 안보관계는 눈에 띄게 심화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최근 양국 간 군사·안보 영역에 있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이슈는 바로 캄보디아 해군기지 시설에 대한 중국의 사용 가능성과 관련된 소식일 것이다. 각종 언론매체에 따르면 2022년 6월 캄보디아 레암(Ream) 해군기지의 보수 및 확장공사가 완료되었다.⁵⁹⁾ 무엇보다도 레암 기지의 공사는 전적으로 중국의 재정적 지원 아래 진행되었기 때문에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일부 미국 언론들은 이 기지를 중국 해군이 이용할 수 있다는 비밀협약이 중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맺어졌다는 의혹을 보도하는 등 향후 중국 해군에 의해 이 항구시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⁰⁾ 무엇보다도 레암 해군기지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태국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항구시설에 대한 이용권한이 중국 해군에 부여될 경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해군의 접근력과 투사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 지역에 대한 중국 해군의 보다 공세적인 군사활동도 가능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진핑 주석 이후의 중국은 미국 등 서방 라이벌 국가의 압

58) *Khmer Times*, "Arm-in-Arm through Mutual Trust," June 3, 2022, <https://www.khmertimeskh.com/501086955/arm-in-arm-through-mutual-trust/> (검색일: 2022년 10월 2일).

59) Premesha Saha, "The Possibility of a Chinese Base in Cambodia: Reality, Rationale, and Impact,"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June 29, 2022,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the-possibility-of-a-chinese-base-in-cambodia/> (검색일: 2022년 10월 1일).

60) Saha (June 29, 2022).

박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보다 먼 지역으로의 군사 투사능력 강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각 지역에 민군 겸용 항구시설 건설에 개입, 참여해온 바, 레암 해군기지에 대한 지원 역시 그러한 중국의 의도가 숨어있다고도 추측할 수 있다.⁶¹⁾ 결국 캄보디아 해군기지의 사용권한이 중국에게 부여될 경우 중국이 인도차이나반도는 물론 남중국해 지역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한층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중국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캄보디아와의 군사·안보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2년 중국 쉬치량(Xu Qiliang)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안보 문제에 있어 중국은 언제나 캄보디아에 대해 지지할 것”을 확인하며 캄보디아의 자유와 독립, 발전, 안보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⁶²⁾ 캄보디아 국방장관 역시 레암 기지의 보수 및 확장 공사는 캄보디아 안보 이익을 위한 결정이며 다른 국가들의 말은 들을 필요 없다고 발언하며 항구 이용과 관련한 미국 등의 우려 및 의혹을 일축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⁶³⁾

2. 점진적 협력관계 구축: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은 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도 군사·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접근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해당 영역에서의 점진적인 양자관계 강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중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군사·협력관계는 2017년까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사실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70년대 중반 중국과 ASEAN 관계 정상화 이후 높은 수준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지만 2010년대 이후 양국 관계에 있어 전략적, 안보적 요인 역시 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⁶⁴⁾ 말레이시아와의 군사·안보 관계 확대를 위한 중국

61) Saha (June 29, 2022).

62) *Khmer Times* (August 18, 2022).

63) Saha (June 29, 2022).

64) *The Diplomat*, “China-Malaysia to Hold First Ever Joint Live-Troop Exercise,” August 31, 2015, <https://thediplomat.com/2015/08/china-malaysia-to-hold-first-ever-joint-live-troop-exercise/> (검색일: 2022년 10월 5일).

의 노력은 협동훈련과 일련의 합의 체결, 군사무기 이전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10년대 들어 중국은 군사교육분야의 교류 촉진, 양국 군대 간 상호방문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양국 간 국방협력관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히사무딘 후세인(Hishammuddin Hussein) 국방장관이 2013년 베이징 방문한 후 양국은 합동군사훈련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처음으로 체결하며 본격적인 군사훈련 개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⁶⁵⁾

2016년과 2017년은 특히 중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군사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정이 체결된 해이기도 하다. 먼저 2016년 말레이시아 해군력 강화(현대화 작업)를 위한 중국-말레이시아 간 협력 프레임워크가 맺어졌다.⁶⁶⁾ 이를 통해 중국은 말레이시아에 자국의 신형 연안경비함 네 척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는 양국 간 최초의 주요 군사무기 판매계약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⁶⁷⁾ 이와 함께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별도의 후속 계약 체결을 통해 경비함 네 척 중 두 척은 중국에서, 나머지 두 척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기로 합의를 하였는 바, 이는 말레이시아 해군선 건조 산업에 중국의 참여수준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⁶⁸⁾ 이러한 일련의 계약들은 특히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자국 군사 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중국 무기가 말레이시아의 국방정책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중국 베이징 대학교와 말레이시아 국립 국방대학교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양국이 서명을 함으로써 국방분야 교류 증대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체결되었던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2014년 처음으로 지휘본부 내에서의 합동 작전수행훈련을 진행했으며, 1년 후인 2015년에는 처음으로 실질적인 육군 합동훈련(Exercise Peace and

65) *The Diplomat* (August 31, 2015).

66) Ngeow Chow Bing, "Malaysia-China Defence Relations: Disruptions Amid Political Changes and Geopolitical Tensions," *ISEAS Perspective*, No. 57 (2021), p. 3.

67) *The Diplomat*, "What's Behind the New China-Malaysia Defense Committee?" April 25, 2017, <https://thediplomat.com/2017/04/whats-behind-the-new-china-malaysia-defense-committee/> (검색일: 2022년 10월 5일).

68) *The Diplomat* (April 25, 2017).

Friendship)이 추진되었다.⁶⁹⁾ 말라카 해협 인근에서 실시된 이 훈련에서 중국은 천 명 이상의 병력에 두 척의 전투함, 한 척의 병원선, 세 척의 헬기 강습함 등을 파견하는 등 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고, 두 나라는 훈련 과정에서 해양수송로 안전확보, 상선 호위, 합동 수색 및 구조훈련 등을 진행하며 비전통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능력을 강화를 도모했다.⁷⁰⁾

중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군사분야 교류 역시 확대되었다. 2017년 중국과 말레이시아 간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두 국가는 양국 간 고위급 국방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조직화되고 현실적인 안보문제를 논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⁷¹⁾ 즉, 양국은 보다 제도화된 고위급 국방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군사분야 협력, 정보공유,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남중국해와 말라카해협 등에서의 해양안보, 테러리즘 등과 같은 양국에 공통된 안보이슈 대처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군사·안보 영역에서 중국-말레이시아 간의 협력관계는 절정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⁷²⁾ 이 기간 동안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처음으로 양자 합동훈련을 시작하였으며 군사분야 최고위급 회담, 고위장교 교류, 방위산업 협력, 군사 교육기관 교류 등 모든 방면에서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양국 간 군사·안보협력관계는 2017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정권 교체 후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⁷³⁾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공세적이고 팽창주의적 행위에 대해 말레이시아 군부를 중심으로 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힘을 얻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군사, 안보 영역에서의 양국 협력관계에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불안정함이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69) *The Diplomat* (August 31, 2015).

70) *The Diplomat* (August 31, 2015).

71) *The Diplomat* (April 25, 2017).

72) Bing (2021), p. 2.

73) Bing (2021), p. 3, 11.

싱가포르의 경우 2010년대 중반 잠시 정치적, 외교적으로 경색된 관계를 맞이하기도 했으나 점차적인 관계회복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협력도 천천히 추진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중국의 강압적, 공세적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싱가포르와 중국 간의 정치, 외교적 긴장관계가 형성된 바 있다. 특히 2016년은 양국 관계가 최악이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마찰이 심했으며, 양국 외교관들은 국제회의 무대에서도 갈등을 표출하기도 했다.⁷⁴⁾ 특히 싱가포르는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만과의 군사훈련을 지속했으며, 2016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국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⁷⁵⁾ 하지만 중국-싱가포르 관계는 이후 이러한 문제들을 뒤로하고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두 국가는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관계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군사·안보적으로도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2019년 10월 중국과 싱가포르는 보다 향상된 안보분야 협력을 위한 기존의 안보협력 협정을 갱신했다.⁷⁶⁾ 이미 두 국가는 2008년 ‘군사교류 및 안보협력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Defense Exchanges and Security Cooperation)’을 체결하고 군 인사의 상호방문, 함선의 일시 기항, 군사교육 교류 등과 같은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기본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었는데, 2019년 10월 해당 협정보다 포괄적인 협력 내용을 추가한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 협정을 바탕으로 중국은 싱가포르와 몇 건의 추가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했는데, 여기에는 양국 군대의 상호방문 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양국 군대 간 핫라인 설치, 국방분야 고위급 회담 정례화, 기존에 추진하던 양국 간 훈련의 규모 및 횟수 확대,⁷⁷⁾ 군사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문제 논의

74) Lye Liang Fook, "Singapore-China Relations: Building Substantive Ties amidst Challenges," in Cook Malcolm and Singh Daljit (eds.), *Southeast Asian Affairs* (Singapore: Iseas Yusof Ishak Inst, 2018), pp. 332-333.

75) Er (2021), p. 207.

76) *The Diplomat*, "Why the New China-Singapore Defense Agreement Matters," October 23, 2019, <https://thediplomat.com/2019/10/why-the-new-china-singapore-defense-agreement-matters/> (검색일: 2022년 10월 5일).

77) 중국과 싱가포르는 2009년 처음으로 대테러 훈련을 중심으로 한 양자 합동훈련(Exercise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⁷⁸⁾ 보다 포괄적인 안보협정 체결은 양국 군사협력관계에 있어 중요한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6월 중국과 싱가포르의 국방협력 강화를 위한 두 건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며 양국 간 군사·안보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당시 2019년 협정체결을 통해 정례화되었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두 국가는 군사교육기관 및 싱크탱크 간 교류 증대, 협력 강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중국군과 싱가포르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상대국 군사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수행을 합의했다.⁷⁹⁾ 이에 더해 싱가포르의 군사기관은 2016년과 2022년에 각각 중국 국립국방대학교,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과학학교(Academy of Military Science)와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양자 간 군사안보분야의 교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중국은 201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의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시도를 해왔으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경제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영역에서도 상호신뢰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과의 군사·안보 협력관계는 태국, 캄보디아 협력수준만큼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2017년까지 눈에 띄는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이 추진되었으나 이후부터는 별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중국과 싱가포르 간의 협력관계 역시 아직까지는 몇몇 협정과 양해각서 체결 등과 같은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양자훈련 실시, 고위급 회담 정례화 등과 같은 분야로까지 협력이 확대되고 있지 않다. 태국, 캄보디아와는 달리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모두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분쟁지역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팽창주의적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중국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중국

Cooperation)을 실시한 후 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78) *The Diplomat* (October 23, 2019).

79) *Straits Times*, "Singapore, China Sign Defence Agreements to Boost Professional, Academic Exchanges," June 9, 2022,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spore-china-sign-defence-agreements-to-boost-professional-academic-exchanges> (검색일: 2022년 10월 3일).

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층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이들 국가들 간의 공고한 군사·안보 협력관계 구축에 중요한 장애물로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3. 더딘 협력관계: 베트남

남중국해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국이며, 해당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도 크고 작은 충돌을 벌여 왔던 베트남 역시 중국의 군사·안보 관계 구축의 주요 대상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보문제에 있어 두 국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이로운 안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제, 정치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영역에서 베트남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2010년대 이후 중국-베트남 관계의 핵심에는 남중국해 문제가 자리잡고 있으며,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걷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법을 모색해 나갔으며,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그러한 조짐은 나타났다. 우선 중국은 베트남과의 상호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국방분야 고위급 교류 증진에 나섰다. 2017년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의 응우옌 푸 쩡(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두 국가 간 정치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전반적인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⁸⁰⁾ 특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의제에 올랐으며 분쟁 수역에서의 문제 발생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메커니즘 확립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⁸¹⁾

한편, 중국과 베트남은 양국 국방장관회담도 정기적으로 개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교류, 전략대화 개최, 합동 정찰임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5월 중국 웨이펑허 중국 국방장관은 고위급 장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베트남에 방문했는데, 이때 개최된 일련의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군의학 협력, UN 평화유지임무 관련 협력, 국경 우호

80) *The Diplomat*, "The Resurgence of China-Vietnam Ties," January 25, 2017, <https://thediplomat.com/2017/01/the-resurgence-of-china-vietnam-ties/> (검색일: 2022년 10월 4일).

81) *The Diplomat* (January 25, 2017).

교류프로그램 등 기존에 양국이 진행하던 협력분야를 한층 더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회담의 후속조치로써 군의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군참모 교육 협력을 위한 협정, 베트남 국립 아카데미와 중국 국방대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등이 일괄적으로 체결되었다.⁸²⁾ 이와 함께 최근 2021년 중국 웨이핑허 국방부장은 베트남 응우옌 푸 쯡 공산당 서기관, 응우옌 쉰옌 폭(Nguyen Xuan Phuc) 주석과 차례로 회담을 가지고 국제 군사협력 분야에 있어 양국 국방부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⁸³⁾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중국은 베트남과의 안보분야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중국과 베트남 간의 군사·안보 분야 협력관계는 일견 2010년대 중반 이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구축 수준과 비교하면 중국-베트남 안보협력관계는 상당히 뒤쳐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두 국가는 회담의 결과 일련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양국 군대 간 합동 훈련은 추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군사교육 교류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무기 및 군사장비 판매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과 베트남 간의 협력수준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교해 크게 뒤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남중국해 분쟁이라는 장애물이 여전히 중국과 베트남 간 상호 불신과 우려를 조성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군사협력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82) *The Diplomat*, "China-Vietnam Military Ties in the Headlines with Defense Ministers Meeting," May 24, 2019, <https://thediplomat.com/2019/05/china-vietnam-military-ties-in-the-headlines-with-defense-ministers-meeting/> (검색일: 2022년 10월 5일).

83) *Xinhua*, "Vietnam, China Agree to Strengthen Bilateral Ties, Military Cooperation," April 26, 2021,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1-04/26/c_139908007.htm (검색일: 2022년 10월 5일).

IV. 중국-동남아 군사·안보협력의 전망과 한계

2010년대 말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군사·안보적 관계에서는 양자 중심의 협력구조 속에서 다자적 접근법이 추진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인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중국은 2000년대 이후 ASEAN 주도로 창설된 안보분야 다자협의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2010년대 말에는 중국이 주도가 되어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과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일례로 2021년 10월 중국은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을 체결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여 및 영향력 확대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⁸⁴⁾ 더욱이 2021년 중국-ASEAN 관계 30주년 행사에서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양자 관계에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점이 설정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다자주의 틀 안에서도 양자 간 안보협력관계 구축 노력을 시사했다.⁸⁵⁾

한편, 중국은 다자 합동군사훈련 추진에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2015년 처음으로 양자 합동 군사훈련(Exercise Peace and Friendship)을 실시했는데, 2018년부터 태국을 이 훈련에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3자 합동훈련으로 발전시켰다.⁸⁶⁾ 그리고 같은 해 중국은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또 다른 3자 합동훈련을 추진하기도 했다.⁸⁷⁾ 무엇보다도 중국은 2018년 10월 사상 처음으로 ASEAN과의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은 2015년부터 ASEAN과의 합동훈련 시행을 제안한 바 있는데, 2017년부터 양자 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 마침내 첫 훈련이 진행된 것이다.⁸⁸⁾ 이 훈련의 실시는 무엇보다도 안보와 국

84) Ha (2021), pp. 3-5.

85) Ha (2021), p. 5.

86) Bing (2021), p. 8.

87) *The Diplomat*, "What's in China's Military Exercise with Malaysia and Thailand?" October 17, 2018, <https://thediplomat.com/2018/10/whats-in-chinas-military-exercise-with-malaysia-and-thailand/> (검색일: 2022년 10월 5일).

88) *The Diplomat*, "Why the First China-ASEAN Maritime Exercise Matters," October 22, 2018, <https://thediplomat.com/2018/10/why-the-first-china-asean-maritime-exercise-matters/> (검색일: 2022년 10월 5일).

방 분야에서도 ASEAN과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은 특히 이 훈련을 통해 중국이 지역 안보와 평화에 대한 헌신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는 군사·안보 영역에서 중국-ASEAN 관계의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시 훈련에서 중국군을 이끌었던 중국해군 남방함대 사령관 위 안위바이(Yuan Yubai) 제독은 이 훈련을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중국과 ASEAN 간 상호 이해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하며 다자 차원에서의 중국-ASEAN 안보협력관계를 계속 추진해 나갈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⁸⁹⁾

중국은 동남아시아 간의 군사·안보관계 구축노력을 통해 지역 안보문제 대응에 있어 지역 국가들과의 공조능력 강화, 중국에 대한 우려 불식 및 군사 분야 상호 신뢰 구축 등과 같은 목표를 성취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중국-동남아 국가 간 협력에는 한계 역시 뚜렷하다. 먼저 남중국해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분쟁당사국과 중국 간에는 쉽게 해결하기 힘든 장애물이 존재한다. 특히 분쟁지역을 둘러싸고 중국의 공세적 행위가 점증하는 가운데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우려와 의혹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정부는 물론 군대 간에도 높은 수준의 신뢰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이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중 일부는 안보적으로 미국과 더욱 공고한 관계 구축에 나서면서 중국과의 안보협력에 적극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둘째, 안보 협력의 범위와 수준, 내용에 있어 중국-동남아시아 국가 간 협력 정도는 미국-동남아시아 국가 간 협력에 크게 뒤쳐져 있으며, 이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냉전 시기 때부터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식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했으며, 최근에는 안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눈에 띄게 끌어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일부 국가들과의 협

89) *The Diplomat* (October 22, 2018).

정 체결 및 개정 등을 통해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최신 전략자산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의 협력은 중국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은 2010년 중반 이후 일부 국가들과 새로운 양자훈련을 추진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오랜 군사훈련의 수준과 훈련의 내용 및 정교함 등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과 가장 활발히 양자 훈련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1982년 처음 실시된 미국-태국 간의 대표적 합동군사훈련(Exercise Cobra Gold)은 규모와 훈련의 정교함 및 복잡성 측면에서 중국-태국 훈련을 압도하고 있다.⁹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은 향후 지속적으로 경제 영역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국이나 캄보디아 등과 같은 일부 국가들과의 군사·안보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몇몇 국가들에 대한 안보적 영향력을 확대시킴으로써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만큼 군사적 자원을 활용한 군사외교 활동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동시에 몇몇 한계점으로 인해 중국은 경제 영역과는 달리 군사·안보 영역에서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비교하면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중국의 대동남아시아 협력관계 구축 노력은 역사가 굉장히 짧기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 한계점들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V. 결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중국은 경제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영역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및 향상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양자 수준에서의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조금씩 중국 주도의 다자주의 접근 노력으로 발전하는 모

90) Hewison (2018), p. 125.

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국은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적 측면에서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지역의 여러 비전통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국가들과의 공조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안보, 전략적 영역에 관해서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중국 역시 조금씩 이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주춧돌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태국과 캄보디아 등과 같은 일부 국가들과의 군사·안보 협력관계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여전히 남중국해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는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거나, 더디게 발전하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국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 역시 필요해 보인다. 일례로 말레이시아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중국과의 적극적인 군사·안보 협력관계 구축에 적극적이었다. 2017년을 전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요소들을 확인하는 연구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동남아시아 군사·안보 협력관계 구축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점들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재범. “미국의 반중국 안보네트워크와 중국의 대응: 태국을 겨냥한 중국의 쏘기전략 분석.” 『아세아연구』 제64권 제2호 (아세아문제연구원, 2021).
- 이숙연. “안보목표 실현을 위한 아세안의 제도적 전략: ADMM-Plus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아시아학회, 2021).
- 정호경. “디지털 패권경쟁 시대의 중·아세안 관계 - 디지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제30권 제1호 (대한정치학회, 2022).
- 조원득·이상숙. “미중 전략경쟁과 베트남의 대중국 전략: 헤징에서 연성균형 전략으로.” 『동북아연구』 제35권 제2호 (동북아연구소, 2020).
- Allen, Kenneth W., Chen, John, and Saunders, Phillip C. *Chinese Military Diplomacy, 2003-2016: Trends and Implication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17).
- Bi, Shihong.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under the Building of ASEAN Economic Community.”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Vol. 10, No. 1 (2021).
- Bing, Ngeow Chow. “Malaysia-China Defence Relations: Disruptions Amid Political Changes and Geopolitical Tensions.” *ISEAS Perspective*, No. 57 (2021).
- Chan, Lai-Ha. “Soft Balancing against the US ‘Pivot to Asia’: China’s Geostrategic Rationale for Establishing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71, No. 6 (2017).
- Chiang, Min-Hua. “China-ASEAN Economic Relations after Establishment of Free Trade Area.” *The Pacific Review*, Vol. 32, No. 3 (2019).
- Er, L. A. M. Peng. “Singapore-China Relations in Geopolitics, Economics, Domestic Politics and Public Opinion: An Awkward ‘Special Relationship’?”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Vol. 10, No. 2 (2021).
- Fook, Lye Liang. “Singapore-China Relations: Building Substantive Ties amidst Challenges.” *Southeast Asian Affairs* (2018).
- Gong, Xue. “The Belt & Road Initiative and China’s Influence in Southeast Asia.” *The Pacific Review*, Vol. 32, No. 4 (2019).
- Ha, Hoang Thi. “The ASEAN-Chin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What’s in a Name?” *ISEAS Perspective*, No. 157 (2021).
- He, Kai. “Contested Regional Orders and Institutional Balancing in the Asia

- Pacific.” *International Politics*, Vol. 52, No. 2 (2015).
- _____. “The Balance of Infrastructure in the Indo-Pacific: BRI, Institutional Balancing, and Quad’s Policy Choices.” *Global Policy*, Vol. 12, No. 4 (2021).
- Hewison, Kevin. “Thailand: An Old Relationship Renewed.” *The Pacific Review*, Vol. 31, No. 1 (2018).
- Hong, Zhao.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ASEAN.”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7, No. 2 (2019).
- Mearsheimer, John.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Company, 2001).
- Po, Sovinda, and Primiano, Christopher B. “Explaining China’s Lancang-Mekong Cooperation as an Institutional Balancing Strategy: Dragon Guarding the Water.”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75, No. 3 (2021).
- Ratner, Ely. “Rebalancing to Asia with an Insecure Chin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6, No. 2 (2013).
- Saunders, Phillip C., and Shyy, Jiunwei. “China’s Military Diplomacy.” In Scott D. McDonald and Michael C. Burgoyne (eds.). *China’s Global Influence: Perspectives and Recommendations* (Honolulu, HI: Daniel K. Inouy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2019).
- Shambaugh, David. “China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2004).
- _____. “Assessing the US “Pivot” to Asia.” *Strategic Studies Quarterly*, Vol. 7, No. 2 (2013).
- _____. “US-China Rivalry in Southeast Asia: Power Shift or Competitive Coexiste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2, No. 4 (2018).
- Storey, Ian. *Thailand’s Post-Coup Relations with China and America: More Beijing, Less Washington*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2015).
- _____. “Thailand’s Military Relations with China: Moving from Strength to Strength.” *ISEAS Perspective*, No. 43 (2019).
- Swaine, Michael D. “Chinese Leadership and Elite Responses to the US Pacific Pivot.” *China Leadership Monitor*, Vol. 38, No. 5 (2012).
- _____.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Periphery Diplomacy.” *China Leadership Monitor*, Vol. 44, No. 1 (2014).
- Tow, William T. “The United States and Asia in 2014: Reconciling Rebalancing and Strategic Constraints.” *Asian Survey*, Vol. 55, No. 1 (2015).

〈신문〉

Asia Nikkei. "Thailand and China: Brothers in Arms." February 2, 2017. <https://asia.nikkei.com/Politics/Thailand-and-China-Brothers-in-arms> (검색일: 2022년 10월 1일).

Bangkok Post. "Thailand Plans Joint Arms Factory with China." November 16, 2017.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1361683/thailand-plans-joint-arms-factory-with-china> (검색일: 2022년 10월 2일).

Global Times. "Xi Defines New Asian Security Vision at CICA." May 22, 2014. https://www.globaltimes.cn/content/861573.shtml?utm_source=The+Sinocism+China+Newsletter&utm_campaign=c1267a193c-Sinocism05_22_145&utm_medium=email&utm_term=0_171f237867-c1267a193c-28865009&mc_cid=c1267a193c&mc_eid=ac039854ec (검색일: 2022년 10월 10일).

Khmer Times. "Cambodia and China Sign MoU on More Army Cooperation." April 4, 2022. <https://www.khmertimeskh.com/501052050/cambodia-and-china-sign-mou-on-more-army-cooperation/> (검색일: 2022년 10월 1일).

_____. "Arm-in-Arm through Mutual Trust." June 3, 2022. <https://www.khmertimeskh.com/501086955/arm-in-arm-through-mutual-trust/> (검색일: 2022년 10월 2일).

_____. "Cambodia, China Push for 'Golden Dragon' Military Drill." August 18, 2022. <https://www.khmertimeskh.com/501133958/cambodia-china-push-for-golden-dragon-military-drill/> (검색일: 2022년 10월 2일).

Radio Free Asia. "As US, Australia Hang Tough on China, Singapore Seeks Stability." July 28, 2020. <https://www.rfa.org/english/news/china/singapore-07282020183454.html> (검색일: 2022년 10월 6일).

Straits Times. "Singapore, China Sign Defence Agreements to Boost Professional, Academic Exchanges." June 9, 2022.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singapore-china-sign-defence-agreements-to-boost-professional-academic-exchanges> (검색일: 2022년 10월 3일).

The Diplomat. "Singapore's PM Meets With President Biden on US Trip." March 3, 2022. <https://thediplomat.com/2022/03/singapores-pm-meets-with-president-biden-on-us-trip/> (검색일: 2022년 10월 1일).

_____. "China, Cambodia Hold First Naval Exercise Amid South China Sea Fears." February 24, 2016. <https://thediplomat.com/2016/02/china-cambodia-hold-first-naval-exercise-amid-south-china-sea-fears/>

(검색일: 2022년 10월 2일).

_____. "What Did the 2020 China-Cambodia Golden Dragon Military Exercise Actually Achieve?" April 1, 2020. <https://thedi diplomat.com/2020/04/what-did-the-2020-china-cambodia-golden-dragon-military-exercise-actually-achieve/> (검색일: 2022년 10월 2일).

_____. "Why is a Big Cambodia Military Delegation in China?" July 10, 2015. <https://thedi diplomat.com/2015/07/why-is-a-big-cambodia-military-delegation-in-china/> (검색일: 2022년 10월 2일).

_____. "China, Thailand Kick Off Military Exercise Blue Strike 2016." May 23, 2016. <https://thedi diplomat.com/2016/05/china-thailand-launch-military-exercise-blue-strike-2016/> (검색일: 2022년 10월 3일).

_____. "The Resurgence of China-Vietnam Ties." January 25, 2017. <https://thedi diplomat.com/2017/01/the-resurgence-of-china-vietnam-ties/> (검색일: 2022년 10월 4일).

_____. "China-Malaysia to Hold First Ever Joint Live-Troop Exercise." August 31, 2015. <https://thedi diplomat.com/2015/08/china-malaysia-to-hold-first-ever-joint-live-troop-exercise/> (검색일: 2022년 10월 5일).

_____. "China-Vietnam Military Ties in the Headlines with Defense Ministers Meeting." May 24, 2019. <https://thedi diplomat.com/2019/05/china-vietnam-military-ties-in-the-headlines-with-defense-ministers-meeting/> (검색일: 2022년 10월 5일).

_____. "What's Behind the New China-Malaysia Defense Committee?" April 25, 2017. <https://thedi diplomat.com/2017/04/whats-behind-the-new-china-malaysia-defense-committee/> (검색일: 2022년 10월 5일).

_____. "What's in China's Military Exercise with Malaysia and Thailand?" October 17, 2018. <https://thedi diplomat.com/2018/10/whats-in-chinas-military-exercise-with-malaysia-and-thailand/> (검색일: 2022년 10월 5일).

_____. "Why the First China-ASEAN Maritime Exercise Matters." October 22, 2018. <https://thedi diplomat.com/2018/10/why-the-first-china-asean-maritime-exercise-matters/> (검색일: 2022년 10월 5일).

_____. "Why the New China-Singapore Defense Agreement Matters." October 23, 2019. <https://thedi diplomat.com/2019/10/why-the-new-china-singapore-defense-agreement-matters/> (검색일: 2022년 10월 5일).

Xinhua. "China, Thailand Agree to Enhance Military Cooperation." November 17, 2019.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11/17/c_13856

2358.htm (검색일: 2022년 10월 3일).

_____. "Vietnam, China Agree to Strengthen Bilateral Ties, Military Cooperation." April 26, 2021.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1-04/26/c_139908007.htm (검색일: 2022년 10월 5일).

〈인터넷 자료〉

Graham, Euan, and Huxley, Tim. "The US-Singapore Enhanced Defence Agreement: A Third Upgrade for Bilateral Collaboration." *Lowy Institute Report*, December 10, 2015.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us-singapore-enhanced-defence-agreement-third-upgrade-bilateral-collaboration> (검색일: 2022년 10월 1일).

Saha, Premesha. "The Possibility of a Chinese Base in Cambodia: Reality, Rationale, and Impact."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June 29, 2022.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the-possibility-of-a-chinese-base-in-cambodia/> (검색일: 2022년 10월 1일).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https://www.sipri.org/databases/armstransfers> (검색일: 2022년 10월 1일).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6, 2020.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20/05/U.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Report-5.24v1.pdf> (검색일: 2022년 10월 2일).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6 Annual Report to Congress." November, 2016. <https://www.uscc.gov/annual-report/2016-annual-report-congress> (검색일: 2022년 10월 4일).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SA." <https://dod.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2018-National-Defense-Strategy-Summary.pdf> (검색일: 2022년 10월 2일).

_____. *Indo-Pacific Security Strategy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9).

_____. *2020 China Military Power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20).

[ABSTRACT]

An Analysis of China's Military and Defense Ties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Era of the US-China Competition

Jaebeom Kwon | Assistant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oohwan Hwang |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As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intensified, each country has adopted various policies to hold a dominant position over its rival. The United States has attempted to check the rise of its challenger by consolidating its anti-China security coalition as well as enhancing its ties with other Asian powers. Confronting an expanding US-led security network targeting them, China has also implemented several measures, one being its recent endeavor to establish defense and military cooperation with regional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ina's efforts to deepen and widen its defense and military ties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It shows that China's recent efforts have been implemented primarily in a bilateral way. While China has enjoyed all-weather security ties with some countries, such as Thailand and Cambodia, its defense ties with other countries have only gradually increased. Due to several limitations, it will have a long way to go to establish firm cooperative military and defense relationships with most Southeast Asian countries.

Key Words: The US-China Relations, The Rise of China, China-Southeast Asian Relations, Military and Defense Cooperation

투 고 일: 2022.10.16.

심 사 일: 2022.11.08.

게재확정일: 2022.11.10.